

# 2025학년도 대입 수능 대비 총력

###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부터 8일까지 '수능 집중 연수 주간' 운영 과견감독관 역할 안내 등 수능업무처리 주요 내용 담당자별 세분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8일을 수능 집중 연수 주간으로 정하고 '2025 수능업무처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당자별로 세분화해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수능은 14일 치러지며, 도내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서 총 1만 7,041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5~6일 과견감독관 66명을 대상으로 시험장 최종 점검, 감독관 예비소집 관리 감독, 수능 당일 시험 운영 관리 감독 등 과견감독관의 핵심 역할을 안내한다.

이어 7일 오전에는 방송담당자 전문 연수를 실시한다. 방송시설 준비 및 관리 요령, 타종 및 듣기평가 시행 지침, 돌발 상황 대처 요령 등 방송 운영 매뉴얼을 전달하는 이 연수는 시험

장학교 교감, 방송담당자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같은 날 오후 업무처리지침 전달 회의에서는 △시험장 설치 및 운영의 각종 준수사항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 방지 대책 세부 내용 △상황별 시나리오 등 2025학년도 수능 업무처리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험장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지구

교육지원청 과장 및 장학사, 중앙협력관 등 총 166명이 참석한다.

끝으로 8일 오전에는 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수험생 예비소집을 위한 안내 회의가 관내 모든 고등학교 진학 부장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별 해당 장소에서 오전 10시 진행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 지역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수험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응시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지원청 과장 및 장학사, 중앙협력관 등 총 166명이 참석한다.

끝으로 8일 오전에는 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수험생 예비소집을 위한 안내 회의가 관내 모든 고등학교 진학 부장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별 해당 장소에서 오전 10시 진행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 지역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수험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응시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달 31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박진배 총장, 수퍼스타 인증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늘은 내가 '수퍼스타'

### 전주대,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전주대학교 학생취업처는 지난달 31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퍼스타를 키우는 대학'이라는 대학 슬로건에 맞춰 만들어진 전주대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업적을 달성한 학생에게 인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는 수퍼스타 인증자 73명과 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자 중 최고 득점자인 소방안전공학과 장희재

학생(19학번)과 역사콘텐츠학과 소지은 학생(21학번)은 "대학 생활 중 다양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써 도전은 곧 배움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수퍼스타가 되기 위해 미지의 영역을 향한 크고 작은 도전을 성취했듯이, 사회에서도 목표한 길에서 끊임없이 도전해 후배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과 상생 이끄는 플레그십 대학 다짐

### 전북대, 개교 77주년 기념식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개교 77주년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1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본부 앞 발전기원당 인근에서 진행된 식수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과 보직교수 등이 참석해 올해 화수를 맞은 전북대의 발전상을 나무에 आरो새겼다.

특히 이날 심은 나무는 한 줄기에서 같은 크기의 여러 가지가 뻗어 나오는 소나무인 '반송(盤松)'이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개교 77주년을 맞아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레그십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겼다.

양오봉 총장은 "개교 77주년은 우리 대학이 발전하는 도약의 원년"이라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레그십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해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1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앞 발전기원당 인근에서 개교 77주년 기념 식수행사가 열린 가운데, 양오봉 총장과 보직교수 등이 참석해 올해 화수를 맞은 전북대의 발전상을 나무에 आरो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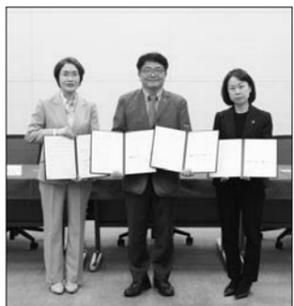
## 전북대, 지역 대학에 우수 인프라 개방

### 군산대·원광대 이어 전주대·호원대·우석대 등과 잇단 협약 도서관 시설 개방·프로그램 공동 참여·학생자치기구도 협력

전북대학교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등과의 잇단 협약을 통해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지역민과 지역대학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협약식에는 전북대 김중석 학생처장과 우석대 심재광 학생취업처장, 전주대 신숙경 학생취업처장, 호원대 김희성 학생지원처장 등이 참석해 지역 대학 학생들에게 전북대의 여러 인프라를 개방하고, 공동 활용을 통한 학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지역 대학 간 세부 협약은 지난해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한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10개 대학이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실행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전북대는 지난 2일 군산대, 원광대와 공동 활용을 위한 세부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등과 잇단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중앙

도서관의 도서와 e-book 등의 자료 대출을 공유하고, 논문 작성 지원과 학술 주제 강연 등의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도 개방한다. 또한 중앙도서관 주관의 공연과 전시 등의 문화프로그램 참여와 학습과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 간 협의를 구성하고 지자체나 시설을 개방을 위한 학생 지원 실무 부서 간 행정적 협력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중석 학생처장은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예산 중 500여억원을 지역대학과 공유하고,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지역 대학에 개방해 지역과 지역대학이 모두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쌓여왔던 지역 대학 간 단절을 완전히 허물어 학생 누구나 전북대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은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물방역대학원은 전북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설립한 특수대학원이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는 4차산업 융복합 교육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병해충 진단·동정·방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입학원서 접수기간은 4~15일까지다. 이어 12월 6일 구술고사를 거쳐 12월 20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입학원서는 식물방역대학원 홈페이지(<https://gqq.jnu.ac.kr/gqq/index.do>)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한편 식물방역대학원은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전북대가 'AI기반 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경북대는 '검역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전남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적 방제 기술 개발'을 맡아 분야별 커리큘럼을 구축했다. 또한 3개 대학이 공통과정을 운영하며 온라인 및 대면 실습실습 수업을 진행한다.

추병길 원장(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식물방역대학원은 농업분야 병해충 관리에 관련된 인력육성이 시급한 시점에 농업 생산의 현안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기 입학생들이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호남권 창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전북대 창업지원단 등, 대학 창업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19개 창업 유관기관, 글로벌30 사업 프로그램 적극 협력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이 호남권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호남권 창업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여수 유담머리나 호텔에서 '2024 창업중심대학 호남권 대학 창업 활성화 Conference'를 개최했다.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호남권 대학 및 전북 협의회 등 19개 기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 문화 활성화와 호남지역 내 창업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대 창업지원단 등 19개 창업 유관 기관들은 공식 협약식을 통해 창업 특화 프로그램 지원 및 정보 교

류와 프로그램 지원, 대학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대학30 사업 프로그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와 투자유치 연계, 해외진출 지원, 유학생 창업 지원 활동 등을 위해서도 교류하기로 했다.

국경수 단장은 "호남권 대학 창업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호남권 창업 문화 확산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 맞춤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일 2층 강당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교무·학사분야 감사지원 장학사, 민원담당공무원 등 14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연수는 부패·공익신고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관별 업무 담당자의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 이해를 돕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사건 경험은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담당 사무관이 △부패·공익신고 개요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지원제도 등을 소개했다. /장은성 기자

## 자원봉사 활성화... 전주대, 남원시와 협약

### 대학 자원봉사센터 협업 네트워크 구축·우수사례 발굴 등 협력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달 31일 대학 본관에서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이영규 생활소통팀장, 전주대 윤찬영 대외부총장, 황인수 사회봉사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전주대-남원시 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대학 자원봉사센터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주대-남

원시 연계 자원봉사의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찬영 대외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학교와 남원시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전공을 살린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은 "전주대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전공을 살려 활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의 수소산업 생태계 분석

### 우석대, 8일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포럼 개최

우석대학교는 오는 8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RISE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생태계 현황과 수소산업 시장동향 및 지자체의 경제성 분석, 청정수소 생산 및 실증동향에 대한 특강, 우석대학교 글로벌대학 추진전략과 RISE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산학협력부총장 겸 글로벌30 추진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석대학교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수소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